

# 낭만이 흐르는 세느강변의 고서적상 풍경

## 퐁뇌프의 오래된 연인 '부키니스트'

최연구

《한겨레 21》 파리 통신원

파리를 한번 다녀간 사람이라면 노트르담 성당 주변, 퐁뇌프 근처의 세느강변을 따라 다다다다 붙어 있는 초록색 철통을 기억할 것이다. 아침나절에 강변을 둘러본 사람들은 이 초록색 철통의 정체에 대해 한참 고민했을 것이고 오후에 지나간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고서적 노점상(부키니스트 Bouquiniste)'이었음을 알아챘을 것이다.

물론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 할 만큼 구석구석에 유적유물이 자리잡은 파리지만, 파리의 유명한 명물은 대부분 세느강변 주위에

몰려 있다. 노트르담 성당·에펠탑·루브르 박물관이 그러하다. 얼마전 유네스코가 발표한 세계 인류의 명소 리스트에는 세느강변 전체가 명소로 지정됐다. 파리의 경우 워낙 명소가 많았으니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그냥 세느강변 전체를 목록에 올렸다 한다. 파리의 이름다음에 고풍스러움과 정겨움을 한껏 더해주는 것이 바로 세느강변의 '부키니스트'들이다.

### 초록색 철통 속에 희귀서적들이

이 부키니스트의 역사는 17세기 초까지 거슬러올라간다. 파리의 첫 인쇄소는 소르본 대학에 있었는데, 1470년에 생겨

독점 인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책을 소유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자 사치였기 때문에 당국의 허가가 필요했고, '프리빌레쥬(특권)'라는 이름이 붙은 세금까지 물어야만 했다.

당시 모든 책의 맨 첫장에 '국왕의 특권유허'라는 문구가 명시됐고, 출판물의 통제를 위해 책 제목, 작가명, 출판사명도 반드시 적도록 돼 있었다. 그후 소르본을 중심으로 출판조합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1539년 프랑수와 1세는 이 강력한 인쇄소·출판사·제본소·서점간의 독점조합 결성을 금지하는 법을 발표하였다. 세느강의 '부키니스트'는 책의 독점권을 금지한 바로 이 법안 때문에 생겨났다.

책거래가 자유로워지니 서점이 아닌 곳에서도 책을 살 수 있게 됐는데, 말하자면 만물상쯤 되는 상인들이 큰바구니를 지고 다니면서 잡동사니 중에 책도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상점 없이 항상 이동하면서 책을 거래했으므로 허락되지 않는 책들과 외국책도 취급했다. 당국은 이들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 신고를 의무화했고 통과 승인 절차를 밟도록 했다. 통과승인증을 잡동사니

초록색 뚜껑이 있는 영구철통을 퐁뇌프의 다리 난간에 부착해 이뤄진 '부키니스트'는 세느강변의 낭만과 여유의 풍경을 이룬다. 퀘퀘한 책곰팡내 나는 고서적, 오래된 잡지에서부터 그림이나 관광엽서까지 이곳을 들르는 세계의 관광객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바구니 옆에 반드시 붙이고 다니도록 했지만 항상 움직이는 이들을 관리할 재주는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기된 것이 이 이동상인들을 '고정' 시키자는 생각이었다.

1606년부터 이들에게 퐁뇌프 근처에서 낮에 몇시간씩 정착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부키니스트의 효시가 됐다. 1721년의 다리 수리공사로 잠시 자취를 감췄다가 다시 나타난 부키니스트는 1859년에 이르러 파리 경시청의 관리하에 들어간다. 1917년부터는 뚜껑 있는 영구 철통을 다리난간에 부착하도록 했는데, 이때부터 오늘날 부키니스트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 세계 최대 규모의 야외서점

현재 세느강변의 부키니스트는 242곳이나 되는데 세느강 상안에 98곳, 하안에 144곳이 있다. 각각 2미터짜리의 초록색 철통 4개로 상점 하나를 이루는데 이런 부키니스트들이 세느강변을 따라 3킬로미터나 길게 이어져 있다.

부키니스트들이 보유하고 있는 서적만 줄잡아 30만권에 이른다고 하니 야외서점으로는 단연 세계 최고규모이다. 이 철통 고서적 가게의 인수과정도 흥미롭다. 부키니스트 책방은 사려는 사람이 워낙 많아 인수를 원하면 우선 리스트에 올려놓는데, 적어도 4년을 기다려야 차례가 돌아온다. 기존에 이런 종류의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부키니스트가 되면 세



·(가운데) 17세기 초부터 시작된 '부키니스트'의 전통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일주일에 3일 이상 반드시 서점을 열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위) 뒤로 보이는 '퐁뇌프'를 배경으로 '부키니스트'는 독특한 세느강변의 풍경을 이룬다. 관광객이 많아 관광엽서나 기념품도 판매한다.

· 초록색 철통 안에 갇춘 서적이 줄잡아 30만권에 이른다. 야외서점으로는 단연 세계 최대 규모이다.

# 현존하지 않는 시공을 꿈꾸는 자유

판타지의 발생지 영미권 사이트 외

임인철 · 서울문화사 출판부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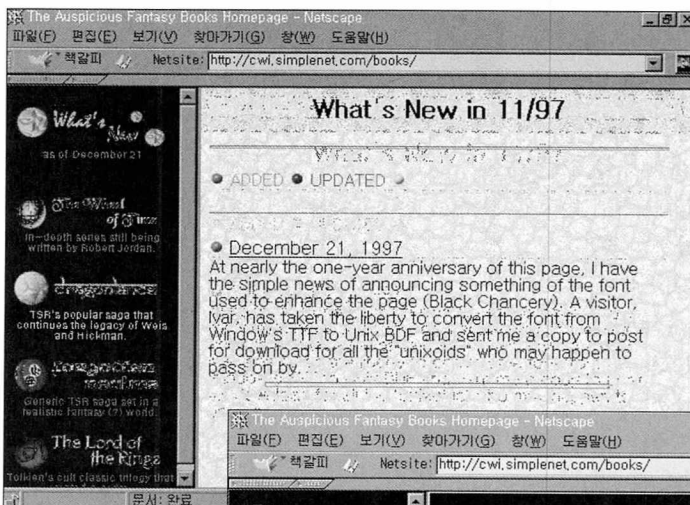
느강변의 풍경 유지를 위해서 일주일에 3일 이상 반드시 열어야만 한다는 독특한 의무가 뒤따른다. 이곳에서는 주로 꿩새한 책과 판화가 풍기는 고서적이나 오래된 잡지를 판매하는데, 관광객들이 들끓는 곳이라 기념품이나 관광엽서도 판매한다. 전후 50년대에 나온 잡지 《파리 마치》나 여성지 《엘》은 부지기수로 많고 1900년대 초반에 나온 고신문이나 잡지도 가지런히 전시돼 있다. 그 외에도 19세기의 고급스런 판화 진품이나 증세시대 모습을 담은 정교한 그림도 많이 판매하는데 액자전문 예술가나 호사스런 수집자들은 꼭 둘러보아야 할 중요한 곳이다.

길게 늘어진 부키니스트 행렬의 중간쯤에 그 유명한 풍뉘프가 있다. 줄리에트 비노쉬 주연의 영화 《풍뉘프의 연인》 때문에 한국에서도 유명해진 이 다리는 16세기에 만들어진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다.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풍뉘프와 풍뉘프 뒤의 배경으로 나오는 사마리엔 백화점도 가짜다. 풍뉘프에서의 촬영허가가 나지 않아 아버뉘에서 그럴 듯하게 가짜 풍뉘프를 하나 만들어 영화를 찍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쨌거나 풍뉘프는 낭만이 있는 곳임에 틀림없다. 아래로 흐르는 세느강의 고아함과 강변부지에서 정겨운 키스를 나누는 연인들, 세느강변을 따라 죽 늘어선 부키니스트 고서적상, 이런 풍경들이 어울려 파리의 낭만과 여유를 집약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풍뉘프를 중심으로 늘어서 있는 부키니스트는 여행객에게는 물론 파리지앵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더 즐겨 찾는 명소가 돼버렸지만 50년 대만 하더라도 세느강의 부키니스트는 지식인들이 단골로 찾던 곳이었다. 오후가 되면 세느강변을 산책하며 사색에 잠기다 강변의 고서적상을 돌며 책을 뒤적이는 것이 당시 지식인들의 큰 낙이었다.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프랑스 대문호 아나톨 프랑스는 일찍이 부키니스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다. “부키니스트들이 있는 세느강변을 지나노라면 나는 기쁨의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기쁨의 전율을 안겨주며 술한 지식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곳이 바로 세느강 부키니스트다. ❖

모든 것을 컴퓨터로 체험하는 요즘 세대에게 ‘판타지’라는 장르의 전혀 낯설지 않은 또 하나의 공간이다. 판타지 소설과 사이버 공간은 둘 모두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궁합이 잘 맞는다.



판타지의 발생지라 할 영미권 사이트 <행운의 판타지 북스>.

SF로부터 발전하여 판타지(판타지 소설의 의미, 이하 ‘판타지’로 표기)라는 별도의 영역을 갖춘 이 장르는 전혀 새로운 소설분야는 아니다. 구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작가와 독자(주로 매니아 수준의 독자)가 형성되어왔고, 영화·미술·음악·컴퓨터 영역까지 넓혀왔다. 일본에서도 몇 편의 걸작들을 낳았고 우리나라로 넘어와서는 주로 PC통신이라는 컴퓨터 온라인 공간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모든 것을 컴퓨터 매개체를 통해 체험하는 요즘 세대에게 판타지의 장르는 전혀 낯설지 않은 ‘또 하나의 공간’이다. 이런 배경으로 말미암아 판타지 소설과 사이버 공간은 궁합이 잘 맞는다. 양자가 모두 ‘가상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인 인터넷에서 판타지 관련 사이트도 적지 않게 마련되어 있다.

판타지의 발생지라 할 수 있는 영미권의 사이트로 《Auspicious Fantasy Books》(cwi.simplenet.com/book/)를 들 수 있다. 이 사이트는 1996년 12월에 개설돼 1997년 12월까지 매월 1~25회 가량의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작품이나 기존 작품의 새 발표본(각 장이나 절 단위)들을 올려 놓고 있다.

메뉴의 구성은 비교적 간단해서 업데이트의 내용을 보여주는 ‘What’s New’ 외에 선정된 4개의 작품이 올라와 있다. 현재 게재되고 있는 작품은 《The Wheel of

Time》·《Dragonlance》·《Forgotten Realms》·《The Lord of the Rings》. 각 권의 내용은 공히 그림(Picture), 책 내용(Book text), 감상(My text)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그림 난에는 해당 작품의 책에 동원된 삽화들이 들어 있다. 작품에 따라서는 주인공 캐릭터 외에도 공간적 배경을 설명하는 그림지도까지 들어 있는데 ‘상상의 공간’을 설명해야 하는 판타지에서 그림지도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두번째로 책 내용 난에는 해당 작품들의 줄거리가 들어 있다. 줄거리는 대부분 전문(full text)을 게재하지는 않는다. 대개는 책의 전체 구성과 각 장의 초록(abstract)을 실는 것이 보통. 그러나 그 구성이 치밀해 ‘이 책을 읽을 만하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감상 난은 리뷰가 주된 내용이 된다. 주로 이 사이트의 운영자(Mike Brinkman)의 리뷰가 실리지만 그 외의 평

자도 동원된다. 이 외에도 구미권의 판타지 관련 사이트는 너무 많아서 걱정일 정도이다. 《Ben’s World of Fantasy》(members.aol.com/WorldofFant/), 《Fantasy》(www.isomedia.com/homes/mibrady/frontier.htm), 《Fantasy Finder》(www.hoh.se/fantasyfinder/) 등이 둘러보면 좋을 곳들.

이제 《퇴마록》·《창룡전》·《드래곤 라자》 등으로 우리나라에도 판타지라는 장르가 무시 못할 소설의 한 분야로 떠올랐다. 이른바 ‘문단’에서는 특히 온라인을 주 활동 무대로 등장하는 ‘새로운 소설’들에 대해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일’이라고 부르는 세대들이 이런 작품들을 찾고 읽는다는 점을 잊지 않는 일이다. 그들은 ‘현존하지 않는 시공을 꿈꿀 수 있는’ 그들만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 ❖